



# 언론 보도 사항

2017. 1. 16(월)

119종합상황실

- 강원 119신고앱 이용률 큰 폭 증가 - 세이프투데이  
- 본부장 이흥교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래 매년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
- 지난해 119 신고접수 시간당 46건 - G1강원민방  
-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 119 신고 접수 건수는 시간당 46건으로 집계
- 강원 건조특보 속 산불·주택 화재 잇따라 - 뉴시스, 강원일보  
-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등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 소방서 언론동향 -

- 원주 움직이는 소화기함 전달식 - 도민일보
- 강릉 [새의자] 장영철 강릉 남성의용소방대장 - 도민일보
- 동해 [새얼굴] 김금조 동해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 강원일보
- 속초 [기고] 속초소방서장 “위기에 처한 설날의 추억” - 강원일보
- 인제 [미담] 남면 여성의용소방대장 연탄 전달 - 강원일보
- 양양 양양 하조대 관광객 풍등에 의한 산불 발생 - 설악뉴스
- 동정 삼척소방서장 - 도민일보

## 강원119신고앱 이용률 큰 폭 증가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2016년 강원119신고앱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84건에 44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래 매년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월15일 밝혔다.

2016년 강원119신고앱 이용한 실적을 보면, 총 184건에 441명을 구조했으며 2015년 대비 구조인원이 41%(13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인원 441명의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산악사고가 전체의 44%(110건 19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난사고 36%(40건 159명), 교통사고 2%(6건 9명),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119신고앱 이용자의 당시 상태를 분석한 결과 52.7%(97건)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증외상 28.8%(53건), 탈진 8.1%(15건), 중증외상 5.4%(10건) 등으로 나타났다.

119신고앱을 활용한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52%, 40대로 19%, 60대 12% 등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의 75%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가을철 등산객이 많은 9~10월이 전체 구조건수의 29%(53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지역별로 보면 평창군 28건(15%), 정선군 23건(12.5%), 춘천시 16건, 홍천군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은 “겨울철 등산 및 조난객들의 신속한 위치파악과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강원 119신고앱을 적극 이용해 달라”며 “2017년 2월 중 지진 등 현장 재난사고 발생시 응급대처요령 등 병원 및 약국정보를 알 수 있도록 119신고앱 콘텐츠 기능을 보강해서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119 신고 접수 “시간당 46건”



지난해 도내에선 시간당 46건의 119 신고 전화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 119 신고 접수 건수는 40만 5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천 111건, 시간당 46.3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신고 건수 보다는 3% 정도 감소했으며, 장난 전화나 오인 신고는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 강원 건조특보 속 산불·주택 화재 잇따라



【양양=뉴스시스】 김경목 기자 =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등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5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평지, 속초·고성·양양 인제·양구 산간 등 8개 시·군에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다.

태백, 원주, 춘천, 강릉·평창·홍천·동해·삼척·정선 산간, 정선·홍천·인제 평지, 철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나무의 건조도 지수·한 지역의 5일 간 습도 변화 가중치에 대한 평균값)가 35% 이하, 건조경보는 실효습도 25% 이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이런 가운데 산불과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4분께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국유림에서 풍등이 산에 떨어지면서 시초류 0.05ha가 불에 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31분께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사유림에서 연탄재 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시초류 0.065ha가 소실됐다.

지난 12일에는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산 30번지 사유림에서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나 시초류 0.03ha가 잿더미가 됐다.

15일 홍천에서는 2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28분께 홍천군 화촌면 아시대로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불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40㎡ 면적 가운데 절반을 태우고 497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의 한 주택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주택 1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났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욱 불씨 관리와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건조 특보속 화재 잇따라

## 홍천 주택 전소·양양서 산불

15일 오전 9시20분께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새벽 3시28분께에는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의 벽돌 주택에서 불이 나 40㎡의 주택 1동이 전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께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의 한 재활용품 업체에서 불이 나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도 전역에 건조 특보가 내려지면서 산불도 비상이 걸렸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도내 북부 산지, 삼

척, 동해, 강릉, 양양, 고성, 속초에 건조 경보, 도내 중남부 산지, 정선, 홍천, 인제, 춘천, 철원, 원주, 태백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 14일 밤 9시44분께 양양군 하광정리 인근 국유림에서 불이 나 산림 500㎡가 불에 탔다. 또 이날 오전 10시31분께에는 횡성군도곡리 사유림에서 불이 나 산림 650㎡를 태우고 진화됐다.

한편 14일 오전 10시57분께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버스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다. 김설영·임재혁·정윤희기자

## 강원도민일보

2017년 01월 16일 월요일  
014면 지역



**움직이는 소화기함 전달식** 원주소방서 (서장 원미숙)는 최근 지역 전통시장에서 '움직이는 소화기함' 전달식을 가졌다.

## 강릉소방서, 장영철 강릉 남성의용소방대장

장영철(54) 강릉소방서 강릉남성의용소방대장은 “탄탄한 대원간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장은 강릉출신으로 경포초, 강릉중, 강릉 중앙고를 졸업했다.

지난 1998년 강릉남성의용소방대에 입대, 태풍 루사·매미를 비롯한 지역의 대형 재난현장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 떡류 가공협회 강릉시 지부장을 맡고 있다

江原日報

2017년 01월 10일 월요일  
012면 지역

### 김금조 동해시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금조(57) 동해시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화재예방과 다양한 봉사, 지역안전 활동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를 이끌겠다”고 다짐. 동해 출신. 방송통신고, 한중대 경영학과를 졸업. 1995년 북평의용소방대원으로 입대, 기술지원반장 지도부장, 북평의용소방대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영자씨와 2남. 취미는 독서. 【동해】

# 위기에 처한 설날의 추억

## 기고



정효수  
속초소방서장

명절 흥거움 가득했던 시장  
최근 대형화재 피해 잇따라  
노후시설·부주의 적극 개선

곧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은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사러 온 소비자들과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팔려는 상인들이 분주할 것이다.

“조금만 더 주이소, 안 주면 그냥 가뿐다.” “너무하네, 오늘 손님 많아 듬뿍 넣었구만, 더는 안 된대이~” 말만 들어도 정감이 넘치고 추억이 어린 곳이 전통시장이다.

그러나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드나들고 입주 점포가 많아 낡은 전선 등 화재 발생 위험이 곳곳에 산재해 예고 없이 화재는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30일 새벽 취약시간대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나 점포 679곳이 불에 났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도 안타깝게 부상을 입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384건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17명, 약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으로서는 전기적 요인이 184건(48%)으로 전체 화재의 절반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인적 요인에 의한 부주의가 98건(25.5%), 기계적 요인,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같은 기간 29건의 화재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3명, 약 3억5,000만원이며, 전기적 요인 9건(31%), 부주의(27.5%), 기계적 요인, 기타 등의 순으로 인적 요인인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역사가 오래돼 낡고 규격에 맞지 않는 전선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 난로나 전기 장판 과열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새벽 취약 시간에 행주를 삶거나 음식물을 올려 놓고 퇴근하거나 전열 기구를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연말 속도 중앙시장 지하 1층 음식점에서 행주를 삶다가 가스불을 끄지 않은 채 퇴근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한 점포의 관리 부주의가 시장 전체를 전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방서의 노력만으로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홍보방송과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 노후화

된 시설물의 교체와 상인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또 시장 관리 주체는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안전시설이 항상 장애 없이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정례화해야 하고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취약시간(새벽 등)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가스누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우려가 없는지 정기적인 순찰을 하는 등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사시 소방 차량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 통로에는 좌판 등을 적치하지 않는 자발적 실천도 절실하다.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스스로 화재 위험 요인이 없는지 살펴 위험 요인은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안전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고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혀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전통시장이 단 한 건의 화재도 없이 오직 정겨운 흥정과 덕담으로 왁자지껄하기를 기원해 본다.

## 江原日報

2017/01/16 월  
016면 지역

### ● 미담 ●

◇인제소방서 남면  
여성의용소방대(대장:  
김숙자)는 지난 13일 관  
내 독거노인 및 기초수  
급가정에 연탄 1,000장  
을 전달했다. 【인제】

## 양양소방서, 하조대 관광객 풍등에 의한 산불 발생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고 산불예방활동이 강화된 가운데 14일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14번지에 풍등에 의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관광객이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하조대 해변에서 띄운 풍등이 바람에 밀려 인근 야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이들은 밤9시45분 경 풍등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자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산불이 발생하자 양양소방서와 양양군 산불지화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선 가운데 의용소방대원들도 진화 작업에 나서 10시30분 경 불길을 잡는데 성공 했다.

올 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10도의 추위 였지만, 다행히 화재발생시 강풍이 불지 않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었다.

화재발생 후 김진하 양양군수도 현장에 나와 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 강원도민일보

2017/01/16

월



김형도 삼  
척소방서  
장은 16일  
오전 10시  
회의실에

서 '으뜸소방인 선발대  
회'를 실시한다.